

알고 싶어요



사이버 성 상담실 www.yline.re.kr

Q

하루에 자위를 한번씩 하는 셈인데요. 자꾸 가만히 있어도 막 나오려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의자에 앉아있을 때 켈 심하고요. 학생이라 시험 때 긴장을 많이 하긴 하는데요. 왜 그러는지 알고 싶어요.

A

자위행위를 하루에 한번씩 하는 셈이라고요. 그래서 그런건지 가만히 있어도 정액이 나오려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요. 정액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별로 걱정할 건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공부, 시험 등의 긴장 때문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공부 등에 대한 긴장에서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고, 자위행위도 좀 줄여보세요. 의무적으로(습관적) 하기보다는 정말 참기 어렵게 강한 욕구를 받을 때 하는 걸로 말이죠.

운동을 좋아한다면 공부에 지치고 긴장된 걸 운동으로 풀어보는 것도 좋겠죠. 긴장감도 풀리고 건강에도 좋으니까요. 또 그런 느낌이 온다면 '그래 이젠 단지 느낌만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정액이 나오는건 아니야' 라고 스스로에게 암시하는 것도 좋답니다.

이런 것 이외에 특별히 몸에 다른 증상(불쾌감, 잦은 소변, 통증 등)이 동반된다면 그때는 비뇨기과 전문의 선생님께 상의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얼마나 여유를 갖고 생활하느냐에 따라 훨씬 편하게 생활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는 항상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Q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어머니를 기다리며 밤 9시쯤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제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거예요. 당황해서 바로 집으로 곧장 달려갔어요. 이것이 성추행이나요? 생각하면 정말 불쾌하고 무서워요. 이럴 때 상황 대처법 좀 알려주세요.

A

늦은 시간에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다가 어떤 아저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요.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셔서 혼자 있다가 어머니 마중을 나갔다가 놀이터에서 어떤 아저씨로부터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당해 당황해 집으로 곧장 갔다고 하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언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불쾌하고 무서웠다고요.

먼저 빠른 판단으로 집으로 간 건 참 잘했습니다. 놀라고 무서워서 아무런 대처도 못하고 그냥 있었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당했을 수도 있거든요.

대처 방법을 알고 싶다고 했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빨리 그 자리를 피하는 것 이외엔 특별한 방법은 없답니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밤늦게 놀이터에 혼자 있는 것 정말 위험하답니다. 밤의 놀이터는 사람도 많이 다니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아저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놀이터는 피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어머니를 뵙고 싶어서 마중 나가는 것은 좋지만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거나 으스스한 곳일 경우에는 어머니와 만나는 시간이 좀더 걸린다 하더라도 집에서 기다리도록 하세요. 어머니를 기다리는 곳이 별로 위험한 곳이 아니라면 마중 나왔을 경우 놀이터는 피하고 바로 어머니와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고요.

집에 부모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혼자 놀이터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쿵쿵쿵 뛰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네요. 빨리 기억에서 잊고 씩씩한 어린이가 되길 바랍니다. **PIPER**